

행운과 불운이 추론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Good and Bad Luck on Reasoning

이병관* · 이국희**

Byung-Kwan Lee* · Guk-Hee Lee**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Abstract

Good and bad luck is an important factor that frequently affects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However, in spite of its significance, few studies have been done to examine how good and bad luck influenc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reasoning. The current research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effect of good and bad luck on reasoning and, for this,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primed with good or bad luck and were asked to make an inference for a given murder case and include as many as clues for it, while in experiment 2, participants were asked to exclude as many as clues for the same murder case. Results show that,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ho were primed with good luck included more clues than those who were primed with bad luck. However, in Experiment 2, it was found that participants who were primed with bad luck excluded more clues than those who were primed with good luck.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priming good luck enhances holistic thinking which leads to including more and excluding less clues whereas priming bad luck increases analytic thinking which leads to including less and excluding more clues.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inference and decision making, consumer behavior, and addict psychology are discussed.

Key words: good luck, bad luck, holistic reasoning, analytic reasoning, causal reasoning

요약

행운과 불운은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에 빈번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함과는 다르게 행운과 불운이 인간의 정보처리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운과 불운점화가 추론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함으로써 운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1은 행운 또는 불운을 점화한 후, 살인사건을 맡은 경찰이 되어 적절한 단서를 포함시키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실험 2에서는 행운 혹은 불운을 점화한 후, 부적절한 단서를 제거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실험 1은 행운점화 조건에서 단서를 포함시킨 수가 불운점화 조건보다 많았고, 실험 2에서는 불운점화 조건에서 단서를 제거한 수가 행운점화 조건보다 많았다. 이는 행운점화가 종합적 추론을 증가시키고, 불운점화가 분석적 추론을 증가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3A2044196).

† 교신저자 : 이국희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석박사통합과정)

E-mail: leegh1983@gmail.com

TEL: 02-940-5428

FAX: 02-941-9214

본 연구가 인지심리학과 같은 기초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행동, 중독심리와 같은 응용장면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 기대한다.

주제어: 행운, 불운, 종합적 추론, 분석적 추론, 인과추론

1. 서론

한국인들은 운을 의사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여 왔다. TV의 역사극을 보면 국왕이나 요직에 있는 정치인이 점술가나 무당, 법력이 높은 스님들에게 나라의 운과 자신의 운,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운을 묻고 그것을 의사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삼는 장면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운은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행운을 암시하는 꿈(e.g., 돼지꿈)을 꾸 다음 날에 복권을 산다거나, 불운을 암시하는 꿈(e.g., 죽는 꿈)을 꾸 다음 날에는 진행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하고자 했던 일을 보류하는 등의 일은 주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다.

문화에 따라 좋은 운의 상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미신들이 존재하는 것도 운이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임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어부들은 고기가 많이 잡힌 날에는 씻기를 꺼려하는데, 이는 그날의 행운이 씻음이라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 씻겨 나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Radford & Radford, 1961; Vyse, 1997). 중국인들도 음력설과 같은 특정한 날에 행운이 있길 빌고, 그 행운이 씻겨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씻지 않는 풍속이 있다(Fong, 2000). 또 다른 연구는 사람들이 운이 좋은 사람을 만지거나, 운이 깃들어 있는 물건을 만지면 그 행운이 나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Wohl & Enzle, 2002).

이렇게 일상생활에 운이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운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인간의 추론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행운-불운과 비교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긍정-부정

정서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Isen과 Patrick(1983) 그리고 Isen과 Geva(1987)는 긍정정서가 위험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Erez와 Isen(2002)은 긍정정서가 어떤 사건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Cassotti, Habib, Poirel, Aïte, Houdé과 Moutier(2012)는 긍정정서가 framing 효과를 제거한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검증하기도 했다.

정서가 추론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도 긍정정서가 전역적이고 맥락적인 추론 경향을 증가시키고, 부정정서가 분석적이고 개별대상 중심적인 추론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발견해왔다(Gasper & Clore, 2002; Isen & Daubman, 1984; Mackie, Asuncion, & Rosselli, 1992). Koo, Clore, Kim과 Choi(2012)는 긍정정서가 한국인의 종합적 추론을 증가시키고, 부정정서가 한국인의 분석적 추론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관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서가 추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우연(행운 vs. 불운)이 인간의 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Xu, Zwich과 Schwarz(2012)가 행운 점화가 위험선택을 증가시키고 불운점화는 위험선택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우연이 기초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준 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의 근본기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행운과 불운이 어떤 추론전략(i.e., 전역적 vs. 국지적, 종합적 vs. 분석적)을 유도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면, 우연이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e.g., Kramer & Block,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우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기초인지과정들 중, 행운과 불운의 점화가 종합적 추론과 분석적 추론전략의 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

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의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점화가 종합적-분석적 추론에 미친 효과와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논의할 것이다.

종합적 추론과 분석적 추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존재한다(Koo et al., 2012). 예를 들어, 학자들 중 일부는 종합적 추론과 전역적 추론을 같은 의미로, 또 분석적 추론과 지엽적 추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종합적-전역적 추론은 구체적인 대상과 맥락이 있을 때 대상과 맥락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분석적-지엽적 추론은 구체적인 대상의 속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규정한다(e.g., Gasper & Clore, 2002; Isen & Daubman, 1984).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전역적 추론이 배경과 전경이 있을 때 배경과 전경의 추상적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지엽적 추론은 배경과 전경이 있을 때 전경의 구체적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역적 추론과 지엽적 추론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사용한다(Hansen & Trope, 2013). 또한 Choi, Dalal, Kim-Prieto와 Park(2003)은 종합적 추론은 사건의 인과 관계를 추론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정황, 사건 당사자들이 처한 간접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고, 분석적 추론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명확한 증거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서에 기초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역적-지엽적 추론과 종합적-분석적 추론이 서로 다른 인지적 과정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Choi et al.(2003)의 제안을 받아들여 종합적 추론과 분석적 추론을 규정하였다. 즉 종합적 추론은 사건의 인과관계 파악에 있어 사건이 발생한 전체적 맥락과 정황, 간접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론하는 것으로, 분석적 추론은 외적으로 드러난 명확한 증거와 직접적인 단서에 기초하여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see also, Koo et al., 2012).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행운-불운이 인간의 추론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즉 정서의 효과와 유사하게 행운은 종합적 추론

을 증가시키고, 불운은 분석적 추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Koo et al., 2012; Xu et al., 2012). 이어지는 실험 1은 행운 또는 불운을 점화한 후 실험참가자들이 살인사건의 단서를 얼마나 많이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실험 2는 행운 또는 불운을 점화한 후 살인사건의 단서를 얼마나 많이 제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만약 행운점화가 본 연구가 규정한 것과 같이 종합적 추론을 증가시킨다면, 실험 1에서는 단서를 더 많이 포함시키고, 실험 2에서는 더 적게 제거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불운점화가 분석적 추론을 증가시킨다면, 실험 1에서는 단서를 더 적게 포함시킬 것이고, 실험 2에서는 단서를 더 많이 제거할 것이다.

2. 실험 1

실험 1은 행운 또는 불운점화가 사람들의 추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2.1. 실험방법

실험 1은 두 가지 운(행운 vs. 불운)을 참가자 간에 점화하는 피험자간 요인 설계를 채택하였다. 실험을 위해 광운대학교 학부생 40명(남: 19, 여: 21)이 실험 실습의 일환으로 참가하였고, 절반은 행운조건에 다른 절반은 불운조건에 무선 할당하였다.

점화를 위해 조건별로 다른 과제를 제작하였다. 먼저 행운점화를 위해서는 운이 좋은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일이라고 상상하도록 하였고, 읽은 내용을 확인하는 간단한 문제를 수행하게 했다. 예를 들어, 행운점화 조건 참가자들은 버스에서 돈을 줍고, 수업에 지각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늦게 오시며, 꼭 필요한 책을 우연히 만난 선배로부터 얻게 되는 대학생의 일화를 읽었다. 부록 A는 행운점화를 위한 과제를 보여준다.

불운점화를 위해서는 운이 나쁜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일이라고 상상하도록 하였고, 읽은 내용을 확인하는 간단한 문제를 수행하게 했다. 예를 들어, 불운점화 조건 참가자들은 돈을 잃어버리고, 수업에 늦었는데 교수님이 일찍 강

의를 마치시어 결석처리 되고, 집에 가는 길에 똥을 밟은 대학생의 일화를 읽었다. 부록 B는 불운 점화를 위한 과제를 보여준다.

조건별로 점화를 수행한 후에는 살인사건의 단서로 적절한 것을 포함시키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제는 Koo et al.(2012)이 사용했던 것으로 자신을 대학원생이 교수를 살인한 사건조사를 맡은 경찰이라고 가정 한 후, 97가지 단서 중 적절한 단서를 포함시키는 과제이다. 부록 C는 살인사건 단서 포함과제의 예를 보여준다. 만약 참가자가 종합적 추론전략을 선호한다면 “대학원생이 최근에 연애에서 실패했는가”와 같은 대학원생이 처한 최근 외부환경 등의 간접적인 단서들도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고, 분석적 추론을 한다면 “교수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학원생을 조롱한 적이 있는가”와 같이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 있었던 직접적인 단서들만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다.

단서 포함과제를 마치면 점화에 따른 조작점검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조절확인을 위해 (1)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다, (2)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3) 오늘은 운이 나쁠 것 같다, (4)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5) 오늘 기분이 좋다, (6)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7) 오늘 기분이 나쁘다, (8) 오늘은 행복하지 않은 날이다의 8가지 문항에 각각 11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5: 보통이다, 10: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1)-(2) 문항은 행운에 대한 평가이고, (3)-(4)는 불운에 대한 평가이며, (5)-(6)은 긍정정서에 대한 평가이고, (7)-(8)은 부정정서에 대한 평가이다. 실험에는 15분이 소요되었다.

2.2. 조작점검

행운과 불운의 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1)-(2)를 행운 평가, (3)-(4)를 불운 평가, (5)-(6)을 긍정정서 평가, (7)-(8)을 부정정서 평가로 단순화하여 조건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운점화 조건의 행운 평가($M = 5.75$, $SD = 1.08$) 불운 점화 조건($M = 4.67$, $SD = 1.83$)보다 높았다, $F(1, 38) = 5.11$, $p < .05$. 또한 행운점화 조건의 불운 평가($M = 2.67$, $SD = 1.74$)가 불운점화 조건($M = 4.12$, $SD = 2.01$)보다 낮았다, F

(1, 38) = 5.93, $p < .05$.

정서조절에 대한 평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ps > .1$. 그러나 행운과 긍정정서, $r = .85$, $p < .001$, 불운과 부정정서 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r = .89$, $p < .001$. 또한 행운과 부정정서, $r = -.54$, $p < .001$, 불운과 긍정정서 사이에는 높은 부적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r = -.70$, $p < .001$. 따라서 행운과 불운의 조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2.3. 결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성별에 따라 단서를 포함한 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p > .1$.

운 점화(행운 vs. 불운)가 살인사건의 단서를 포함시키는 것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진행한 결과 운 점화의 주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1, 38) = 37.73$, $p < .001$, $\eta_p^2 = .49$.

그림 1의 왼쪽은 실험 1의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행운점화 조건에서 살인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포함시킨 단서의 수($M = 40.7$, $SE = 2.56$)가 불운점화 조건($M = 21.0$, $SE = 1.93$)보다 많았다.

2.4. 논의

실험 1을 통해 행운점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단서를 더 많이 포함시키게 하고, 불운 점화가 단서를 더 적게 포함시키게 만드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행운 점화가 종합적 추론을 증가시키고, 불운점화가 분석적 추론을 증가시킨 결과로 보인다.

Koo et al.(2012)은 한국인들에게 긍정정서를 점화할 때 종합적인 추론이 증가하고, 부정정서를 점화할 때 분석적인 추론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성을 가진다. 이는 조작점검에서 나타났듯이 운과 정서 간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점화의 효과가 Koo et al.(2012)에서 나타난 점화의 효과보다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Koo et al.(2012)의 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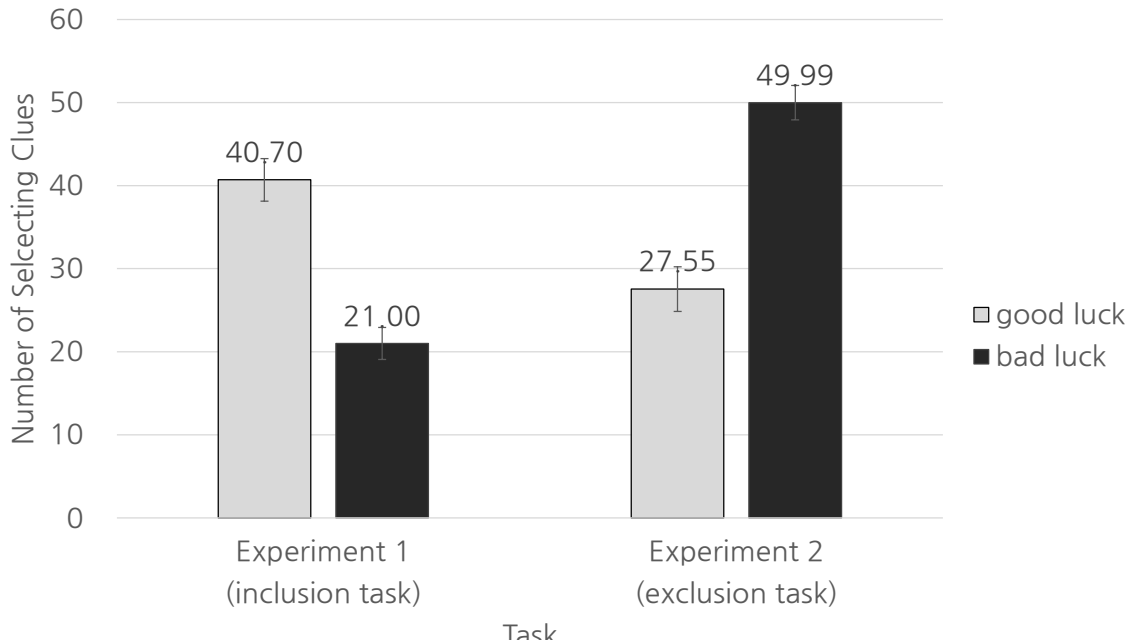


Figure 29. Results of Experiment 1 and 2

포함과제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경우 긍정정서를 점화했을 때 평균 33.82개, 부정정서를 점화했을 경우 평균 27.32개를 포함하였다. 즉 점화조건 간의 평균차이가 6개 정도로 낮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행운을 점화했을 때 평균 40.7개, 불운을 점화했을 때 평균 21개를 포함시키며 조건 간 평균차이가 19개였다.

결론적으로 운과 정서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운과 정서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

3. 실험 2

실험 2는 실험 1에서 사용한 과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서를 포함의 맥락이 아닌 제거하는 맥락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관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3.1. 실험방법

실험 2는 두 가지 운(행운 vs. 불운)을 참가자 간에 점화하는 피험자간 요인 설계를 채택하였다. 실험을 위해 광운대학교 학부생 40명(남: 22, 여: 18)이 실험실습의 일환으로 참가하였고, 절반은 행운조건에 다른 절반은 불운조건에 무선 할당하였다. 살인사건의

단서 중 부적절한 것을 제거하게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방법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부록 D는 실험 2의 단서 제거과제를 보여준다.

3.2. 조작점검

행운점화 조건의 행운 평가($M = 5.93, SD = 1.48$)가 불운 점화 조건($M = 4.57, SD = 1.51$)보다 높았다, $F(1, 38) = 8.16, p = .007$. 또한 행운점화 조건의 불운 평가($M = 2.52, SD = 1.57$)가 불운 점화조건($M = 4.53, SD = 1.69$)보다 낮았다, $F(1, 38) = 14.91, p < .001$.

정서조절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행운 점화 조건의 긍정정서 평가($M = 5.72, SD = 1.65$)가 불운 점화 조건($M = 4.42, SD = 1.74$)보다 높았다, $F(1, 38) = 5.81, p = .021$. 또한 행운점화 조건의 부정정서 평가($M = 3.35, SD = 1.89$)가 불운 점화 조건($M = 4.87, SD = 1.54$)보다 낮았다, $F(1, 38) = 7.78, p = .008$.

실험 1과 마찬가지로 행운과 긍정정서, $r = .87, p < .001$, 불운과 부정정서 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r = .78, p < .001$. 또한 행운과 부정정서, $r = -.52, p < .001$, 불운과 긍정정서 사이에는 높은 부적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r = -.53, p < .001$. 따라서 행운과 불운의 조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3.3. 결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성별에 따라 단서를 포함한 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p > .1$.

그림 1의 오른쪽은 실험 2의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행운점화 조건에서 살인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제거한 단서의 수($M = 27.55$, $SE = 2.69$)가 불운점화 조건 참가자들이 제거한 수($M = 49.99$, $SE = 2.07$)보다 적었다.

운 점화가 단서포함에 미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진행한 결과 운 점화가 단서포함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1, 38) = 43.77$, $p < .001$, $\eta_p^2 = .54$.

3.4. 논의

실험 1과 마찬가지로 행운점화는 사람들의 종합적 추론을 증가시켜 단서를 더 적게 제거하게 만들고, 불운점화는 사람들의 분석적 추론을 증가시켜 단서를 더 많이 제거하게 만드는 것 같다.

Koo et al.(2012)의 실험 1은 한국인들에게 긍정정서를 점화할 경우 살인사건의 단서를 평균 48.73개, 부정정서를 점화할 경우에는 평균 55.42개 제거하는 현상을 관찰한 바 있다. 즉 한국인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점화할 때 더 분석적 추론을 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점화할 때 종합적 추론을 한다.

하지만 점화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가 Koo et al.(2012)에서 나타난 효과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Koo et al.(2012)은 점화조건 간에 단서를 제거한 수의 차이가 7개에 불과하였다면, 본 연구의 실험 2에서는 조건 간의 차이가 22개였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운과 정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운과 정서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4. 종합논의

본 연구는 행운 또는 불운 점화가 추론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 1은 행운 혹은 불운을 점화한 후 살인사건의 단서 중 적절한 것을 포함하게 하였고, 실험 2는 행운 또는 불운을 점화한 후 부적절한 단서를 제거하게 하였다. 그 결과 실험 1에서는 행운일 때 단서를 포함한 수가 불운일 때보다 많았고, 실험 2에서는 불운일 때 단서를 제거한 수가 행운일 때보다 많았다. 이는 행운점화가 종합적 추론을 증가시키고, 불운점화가 분석적인 추론을 증가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Koo et al.(2012)은 긍정 또는 부정정서를 점화한 후 살인사건의 단서를 포함하게 하면서 본 연구와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즉 긍정정서가 한국인의 종합적 추론을 증가시키고, 부정정서가 한국인의 분석적 추론을 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점화의 효과(운의 점화)가 Koo et al.(2012)에서 나타난 점화의 효과(정서의 점화)보다 현저하게 컸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Koo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점화조건 간의 차이가 대략 6개 정도였던 것에 반해, 본 연구의 점화조건 간 차이는 대략 20개였다. 이는 운과 정서가 서로 다른 정보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 연구에서 점화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나타난 운과 정서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 관찰도니 현상이 행운-불운점화가 긍정-부정정서를 유발한 결과인지, 아니면 운 자체가 가지는 주효과가 있고, 운이 유발한 정서가 주효과의 크기를 더 높이는 조절작용이 병존한 결과인지 해석이 필요하다. 먼저 행운-불운점화가 긍정-부정정서를 유발한 결과 본 연구에서 관찰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해석은 타당성이 낮아 보인다. 만약 본 연구의 결과가 결국 정서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의 크기는 Koo et al.(2012)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점화의 효과는 Koo et al.(2012)보다 컸다. 즉 정서 외의 다른 작용이 있었고, 그것이 운의 작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행운-불운점화의 주효과가 있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

에서 관찰한 현상이 행운-불운점화의 주효과만의 결과인지, 아니면 운이 유발한 정서의 조절효과가 중첩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본 연구는 사람들이 운을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는 근본 기제에 운이 추론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Xu et al.(2012)의 연구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점화하면 위험선택이 증가하고, 불운을 점화하면 위험선택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었으나 그 근본기제를 설명하진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행운점화가 종합적 추론을 증가시키고, 불운점화가 분석적 추론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도박이나 경마에 중독된 사람들의 치료법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 도박이나 경마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운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긍정적이기에 분석적인 추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만약 도박이나 경마 중독자들에게 불운을 점화시켜 분석적인 추론을 증대시키면서 기존의 치료들을 병행한다면, 치료의 효과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다양한 시사점을 가지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Koo et al.(2012)의 연구는 영미문화권과 동양문화권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동양문화권의 참가자들만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영미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운 또는 불운을 점화하고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운과 관련된 인간의 신경생리적 기제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제안은 하였지만, 그것이 실재하는지, 실재한다면 뇌의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동안 정서와 관련된 인간의 신경생리적 기제를 발견해온 것처럼 운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간의 신경생리적 기제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De Martino, Camerer, & Adolphs, 2010; De Martino, Kumaran, Seymour, & Dolan, 2006). 더불어 운에 대한 반응의 강도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흥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행운 또는 불운 점화와 그 후에 수행한 단서 찾기 과제사이의 개연성이 낮았는데 이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실에서의 운은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건 또는 대상에 대한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단서 찾기 과제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험자로 하여금 독립변인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Koo et al.(2012)의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실험방법이었다. 또 피험자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추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운 점화에 따른 정보처리방식의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현실에 일반화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운이 사람들의 추론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추론, 의사결정, 행동 등의 기초연구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사결정, 중독심리학 등의 응용장면에도 다양하게 활용될길 기대한다.

REFERENCES

- Cassotti, M., Habib, M., Poirel, N., Aïte, A., Houdé, O., & Moutier, S. (2012). Positive emotional context eliminates the framing effect in decision-making. *Emotion, 12*, 926-931.
- Choi, I., Dalal, R., Kim-Prieto, C., & Park, H. (2003). Culture and judgment of causal relev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46-59.
- De Martino, B., Camerer, C. F., & Adolphs, R. (2010). Amygdala damage eliminates monetary loss avers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 3788-3792.
- De Martino, B., Kumaran, D., Seymour, B., & Dolan, R. J. (2006). Frames, biases, and rational decision-making in the human brain. *Science, 313*, 684-687.
- Erez, A., & Isen, A. M. (2002).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the components of expectancy moti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 1055-1067.

- Fong, M. (2000). "Luck talk" in celebrating the Chinese New Year. *Journal of Pragmatics*, 32, 219 - 237.
- Gasper, K., & Clore, G. L. (2002). Attending to the big picture: Mood and global vs. local processing of visual information. *Psychological Science*, 13, 34-40.
- Hansen, J. & Trope, Y. (2013). When time flies: How abstract and concrete mental construal affect the perception of tim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2, 336-347.
- Isen, A. M., & Daubman, K. A. (1984). The influence of affect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206-1217.
- Isen, A. M., & Geva, N. (1987).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acceptable level of risk: The person with a large canoe has a large wor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9, 145-154.
- Isen, A. M., & Patrick, R. (1983). The effect of positive feelings on risk taking: When the chips are dow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1, 194-202.
- Koo, M., Clore, G. L., Kim, J., & Choi, I. (2012). Affective facilitation and inhibition of cultural influences on reasoning. *Cognition & Emotion*, 26, 680-689.
- Kramer, T., & Block, L. (2008). Conscious and nonconscious components of superstitious beliefs i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 783-793.
- Mackie, D. M., Asuncion, A. G., & Rosselli, F. (1992). The impact of positive affect on persuasion processes.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pp. 201-220). Newbury Park, CA: Sage.
- Radford, E., & Radford, M. (1961). *Encyclopedia of superstitions: A history of superstition*. London, United Kingdom: Hutchinson.
- Vyse, S. A. (1997). *Believing in magic: The psychology of supersti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Wohl, M. J., & Enzle, M. E. (2002). The deployment of personal luck: Sympathetic magic and illusory control in games of pure ch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388-1397.
- Xu, A. J., Zwick, R., & Schwarz, N. (2012). Washing away your (good or bad) luck: physical cleansing affects risk-taking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1, 26-30.

원고접수: 2014.05.07

수정접수: 2014.07.09

게재확정: 2014.08.04

Appendix A: 행운 조건 점화 과제

내가 오늘 하루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상상해봅시다.

오늘은 운이 정말 좋은 날이다.
 아침 학교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이른 아침이어서 그런지 한산했다.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내가 앉으려는 자리에 잘 접힌 종이가 떨어져있었다. 자세히 보니 만원 짜리 세 장이었다. 삼만원을 주운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지갑에 잘 넣었다.
 학교에 도착한 나는 친구들을 만나 커피숍에 갔다. 이러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수업시간이 다되어 가는 지도 몰랐다. 지각이구나 생각하면서 서둘러 강의실로 향했다. 그런데 강의실에 도착한 나는 역시 오늘은 운이 좋다고 확신했다. 교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이다. 친구에게 들으니 방금 전에 조교가 교수님이 조금 늦으신다고 강의실에서 기다리라고 전했다 한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다. “긍정의 힘”이란 책 읽고 감상문을 내는 것이었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모든 수강생이 빌리기에는 책이 부족하여 학교 도서관에서는 빌리지 못하게 해두었다고 하셨다. 결국 책을 사야하는 것이다. 강의가 끝나고 인터넷으로 책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 선배를 한 명 만났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선배에게 음료수를 하나 사드리며, 오늘 수업 때 “긍정의 힘”이란 책을 사서 읽으라고 하는데 선배에게 책이 있으면 빌릴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배는 본인도 작년에 그 수업을 들어서 그 책을 사서 읽었다고 하면서 흔쾌히 빌려주겠다고 했다.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로 운이 좋은 날이었다.

- 오늘 있었던 경험을 모두 고르세요. _____
- ① 돈을 주웠다.
 - ② 복권에 당첨되었다.
 - ③ 수업에 지각했는데 교수님이 늦어서서 정상출석 되었다.
 - ④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이성 친구에게 고백을 받았다.
 - ⑤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는데 내 사연이 채택되어 음료 교환권을 받았다.
 - ⑥ 수업과제로 인해 사야했던 책을 우연히 만난 선배에게로부터 받았다.

Appendix B: 불운 조건 점화 과제

내가 오늘 하루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상상해봅시다.

오늘은 운이 정말 나쁜 날이다.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탔다. 버스가 만원이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덩고, 공기도 탁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지하철로 환승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잘 찍히지 않았다. 몇 번을 해도 잘 되지 않고 뒤에서 못마땅하게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통에 마음이 급해졌다.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내서 찍으려는데, 급하게 꺼내다보니 바닥에 떨어뜨렸다. 뒤에서 일단 비키라는 불평소리가 들려왔다. 할 수 없이 카드를 떨어진 대로 두고 버스에서 내려서 카드를 주울 타이밍을 보았다. 그런데, 버스의 지연에 마음이 급했던 버스 기사아저씨가 승객이 다 내리자마자 문도 닫지 않고 출발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눈앞에서 어제 삼만원을 충전한 버스카드를 잃어버렸다.
 학교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만나 커피숍에 갔다. 아침에 있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의 위로5를 받다보니 수업이 시작할지 30분이 지났는지도 몰랐다. 지각이구나 생각하면서 서둘러 강의실로 향했다. 그런데 강의실에 도착한 나는 수업이 이미 끝나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교수님이 일이 있으셔서 수업을 30분만 하고 끝내셨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결석처리 되었다.
 좋지 않은 마음을 애써 잊으려하면서 집으로 오는데 나도 모르게 한 숨이 나왔다.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걷고 있는데, 신발을 통해 물컹하는 이질감이 전해졌다. 개똥이었다. 개똥을 밟은 것이다. 눈물이 나려고 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키득키득 비웃었다.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로 운이 없는 날이었다.

- 오늘 있었던 경험을 모두 고르세요. _____
- ① 어제 충전한 버스카드를 잃어 버렸다.
 - ② 복권을 5장 샀는데 모두 팽이었다.
 - ③ 수업에 지각했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일찍 끝내셔서 결석이 되었다.
 - ④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이성 친구가 날 몹시 싫어한다는 얘길 들었다.
 - ⑤ 머리카락에 껌이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잘랐다.
 - ⑥ 집에 가는 길에 개똥을 밟아서 신발이 더러워졌다.

Appendix C: 실험 1에서 사용한 살인사건 단서 포함 과제

이제 귀하가 대학원생이 교수를 살해한 살인 사건의 책임을 맡은 경찰관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죽은 교수는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였습니다).

왜 그 대학원생은 자신의 지도교수를 살해하였을까요?

이제 담당경찰관으로서 살인의 동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가능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있습니다.

각 정보들은 살인의 동기를 추정하는데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들 중에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들 옆에 있는 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단서의 예〉

정보:	관련이 있는가?
교수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학원생을 조롱한 적이 있는가	
교수가 술을 마시는 사람인가	
대학원생이 최근에 연애에서 실패했는가	
교수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한 적이 있는가	
대학원생의 정신병력	

Appendix D: 실험 2에서 사용한 살인사건 단서 제거 과제

이제 귀하가 대학원생이 교수를 살해한 살인 사건의 책임을 맡은 경찰관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죽은 교수는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였습니다).

왜 그 대학원생은 자신의 지도교수를 살해하였을까요?

이제 담당경찰관으로서 살인의 동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가능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있습니다.

각 정보들은 살인의 동기를 추정하는데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들 중에서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정보들 옆에 있는 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단서의 예〉

정보	관련이 없는가?
교수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학원생을 조롱한 적이 있는가	
교수가 술을 마시는 사람인가	
대학원생이 최근에 연애에서 실패했는가	
교수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한 적이 있는가	
대학원생의 정신병력	